

‘태풍 휴교령’에 학부모 우왕좌왕... “가이드라인 마련을”

맞벌이·편부모 늦은 공지에 당혹 시교육청, 오전 돌봄 안내했지만 학교마다 시스템 달라 혼란 야기

태풍 발생 비율 증가세 불구 관련 가이드라인 미비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태풍 ‘힌남노’의 위험을 예측해 서울시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를 갑작스럽게 중단시킨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상 기후 등으로 태풍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따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힌남노’로 인한 서울 학교 등교 중단을 두고 시시비비가 나뉘고 있다. 태풍 경로가 서울 중심이 아니었으며 갑작스러운 학교 휴업 소식이 맞벌이 학부모, 편부모 등은 휴가를 사용하는 등 무리해야만 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여간 강력한 비바람이 예고된 힌남노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6일 서울시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를 중단시켰으며 고등학교는 학교별 재량으로 운영시켰다.



태풍 힌남노의 피해 우려로 서울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휴업 또는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한 지난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의 교문이 닫혀 있다. /뉴시스

다만 등교가 중단됐던 6일의 하루 전인 5일 등교 후 결정이 내려지면서 늦어진 공지에 애를 먹은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태풍이 워킹맘 잡는다’, ‘서울은 오늘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데 그러면 내일 아침에 공지 하겠다는 소리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맞벌이 학부모나 편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봐 줄 곳을 구하지 못해 급하게 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다수다. 두 자

녀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B씨는 “갑작스레 등교가 중단돼 잡혀 있던 미팅도 취소하고 아이들을 돌봤다”며 “앞으로 태풍이 더 자주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약체 IPCC에서는 지난 40년간 전 세계에서 3에서 5등급, 우리나라 기준 매우 강에서 초강력 이상의 태풍 발생 비율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태풍 발생 비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발생할 이상 기후 대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돌봄 안내가 나갔지만 학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레 등교가 중단됐던 6일처럼 학교별 선택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지금도 학교별로 신청한 부분에 대한 돌봄 안내는 다 나갔다”며 “다만 돌봄이 학교의 선택 사항이다보니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5일부터 등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등교를 했던 5일에는 비가 내려 학부모들의 우려를 샀으나 등교가 중단됐던 6일에는 기상청의 예상과 다르게 화창해 불멘 소리를 듣기도 했다. 커뮤니티에서는 5일부터 ‘아무 공지가 없어서 그냥 등교했는데 뉴스를 보니 너무 걱정되고 무섭다’, ‘별다른 공지가 아직까지 없는데 빨리 알려 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많았다.

/신하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고양시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

고양특례시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환경관리 ▲재난안전관리 ▲교통수송 관리 ▲민생경제안정 등 주요 6개 분야 종합대책을 수립, 연휴 4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동안에도 주교제1공영주차장·화정역 4번 출구·일산동구보건소·일산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4개소가 정상 운영(9~18시 운영, 12~13시 점심·소독시간 제외)된다. 역학조사반 및 재택치료 응급환자 관리반도 구축, 코로나19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팀을 설치하고,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연휴기간에 방문할 수 있는 병원 및 약국 등 안내문을 게시한다.

재난상황실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주·야간 각 2명씩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순천향대

정보보호 국제 표준화 성과 ITU-T 국제표준 최종 채택

순천향대학교가 5G통신시스템 보안지침을 개발해 세계 최초 정보통신분야 국제기구인 ITU-T로부터 국제표준으로 채택시키는 등 정보보호분야 국제표준화 사업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7일 순천향대에 따르면 통신장비와 시스템의 국제표준 제정기관인 ITU-T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 정보보호 연구반(SG17)’ 회의를 개최해 정보보호 분야 국제 표준안을 최종 채택했다.

순천향대의 ‘5G 통신시스템 개발을 위한 보안 지침’은 2019년 1월 ITU-T의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돼 염홍열 순천향대 교수, 박근덕 서울 외대 교수 등이 에디터로 선정됐다. 지난 5월에는 국제 표준 채택 직전 단계인 ‘사전 채택’에 승인됐으며,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와 캐나다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국제 표준으로 최종 채택됐다. /신하는 기자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기업 취업 프로그램 운영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2년 하반기 공기업 썬스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다. 세종대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취업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운영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공기업 채용 동향 및 기관별 준비 전략 ▲NCS문제풀이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현직자 동문 멘토링 등 공기업 취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다룬다. 오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신청기한은 16일까지다. /신하는 기자

“캠퍼스 범죄 막자”... 대학생 순찰대 가동

서울시 자경위, 순찰대 공개 모집 심야시간 순찰, 불법카메라 점검

서울시가 캠퍼스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공백을 최소화해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 순찰대’를 가동한다.

7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 소재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 순찰대’를 시범 운영한다.

자경위 “최근 대학 내 성범죄 참극 이후 캠퍼스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캠퍼스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인하대에서는 지난 7월15일 교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달 4일 연세대의대 재학생이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고, 올해 6월에는 고려대 축제에서 한 남학생이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자경위는 ▲캠퍼스 내 대학생 자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반려견 순찰대’ 운영 모습. /서울시

순찰대 구성·운영 권장 ▲적극적인 순찰 활동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미진했던 기존 캠퍼스 순찰대 운영 활성화 ▲대학별 산재한 캠퍼스 순찰대 연합 및 상호 협력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순찰대는 심야 시간에 학내와 주변 술집 등 학생들과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환경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인다.

우선 순찰대는 야간시간대에 학교

일대를 정기 순찰하며 학내 음주·취침 금지 및 계도, 불법카메라 점검, 특이사항 발생 보고 등의 임무를 맡는다. 필요시 해당 대학 소재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와 경·학 합동순찰을 실시한다.

이들은 또 캠퍼스 안팎에 있는 범죄 취약 장소를 경찰과 공유한다. 경찰은 범죄예방전담팀, 관련 기관과 함께 해당 장소 내 CC(폐쇄회로)TV, 비상벨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모아타운’ 추가공모 39곳 신청

19개 자치구서 신청... 내달 선정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 추가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39곳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내달 중으로 사전 적정성 검토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폭우 등 기상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

기 위해 상습침수 또는 침수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 밀집 구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대상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내년 초 자치구에 배정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되어

/김현정 기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대단지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